

대 외
교 류

게이오기주쿠대학과의 만남

김태환*

*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선임연구원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은 한국의 연세대학교와 곧잘 비교되곤 하는 일본의 대표적 명문 사립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게이오기주쿠대학과 서울대학교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생겼다.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이 대학의 교양연구센터 사이에 긴밀한 교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과 일본의 대학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문화적·정치적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유사한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 대학과의 교류 활동은 구미 대학과의 교류보다 더욱 생산적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이하 교수학습센터로 약칭)와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양연구센터(이하 교양연구센터로 약칭) 사이의 활발한 교류는 큰 의미를 지닌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교양연구센터 쪽에서 글쓰기 강화를 비롯한 서울대학교의 교육 혁신 움직임에 주목하고, 교류를 요청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교양연구센터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모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교양연구센터와 교수학습센터 사이의 교류는 2004년 1월에 시작되었다. 이때 교양연구센터 소속 스즈키 시니치 교수가 교수학습센터의 전형준 소장과 선임연구원들을 만나 센터의 전반적 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해

여 문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스키 교수는 특히 교수학습센터 글쓰기교실의 상담 프로그램과 당시 개발 중이던 글쓰기 교과목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그 후 2005년 1월과 3월에는 교양연구센터의 요코야마 치아키 소장을 포함하여 센터 소속 교수들이 두 차례 교수학습센터를 방문했고, 2월에는 교수학습센터의 선임연구원들(이희원·김준성 선임연구원과 필자)과 기초교육원 강사들(신선경 대학국어 전임대우강사와 유정아 말하기 강사)이 게이오기주쿠대학 히요시 캠퍼스(요코야마)에 있는 교양연구센터를 방문했다. 히요시 캠퍼스는 교양과정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게이오기주쿠대학의 신입생들은 전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서 1년간 교양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가을에는 '좋은 강의'를 주제로 서울대학교와 게이오기주쿠대학 학생들 사이에 화상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요코야마 치아키 소장(1열 오른쪽에서 첫 번째), 신선경 선생(1열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필자(2열 오른쪽에서 첫 번째), 유정아 선생(3열 왼쪽에서 두 번째), 스키 시나치 교수(2열 왼쪽에서 두 번째), 이희원 선임연구원(2열 왼쪽에서 세 번째), 김준성 선임연구원(3열 왼쪽에서 세 번째), 사토 노조미 교수(3열 오른쪽에서 첫 번째).

지금까지의 교류 과정에서 두 번의 큰 행사가 있었다. 2005년 2월 8일에 게이오기주쿠대학에서 학생 발표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교양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습법(스터디스킬스) 과목의 기말 발표회 성격을 띤 행사였다. 교양연구센터는 교양 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강좌들을 개발하고 시험해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습법 강좌다. 이 강좌는 교양연구센터에서 한 기업인의 후원을 받아 시범적으로 개설·운영하였으며, 게이오기주쿠대학의 신입생들 가운데 60여 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이 과목을 수강했다. 1학기 강좌는 ‘논문 쓰기’에, 2학기 강좌는 ‘발표’에 초점이 맞추어진 다. 수업은 교양연구센터 소속 교수 5인이 함께 돌아가면서 담당하는데, 특기할 만한 점은 수업을 직접 관장하지 않을 때도 함께 들어가 수업을 참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수들 간의 상호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수업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1년간의 수업이 끝난 뒤에 우수한 발표자 6명을 선정하여 학생 발표 경연대회를 했는데, 교양연구센터의 초청으로 히요시 캠퍼스를 방문한 우리 교수학습센터 선임연구원들과 기초교육원 강사들은 이 대회의 후반부를 참관할 기회를 얻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지난 학기 동안, 자기 나름의 주제를 찾아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15분 안에 발표해야 했다. 우리가 본 발표는 생명공학의 미래, 착시 현상, 안드로젠(androgen) 등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짤막하지만 모두 잘 준비된 흥미로운 발표였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행사 전체를 수업을 들은 1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진행하였고, 사회도 학생이 보았다는 사실이다. 발표 후의 토론도 자율적으로, 매우 활발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교수와 학생들의 공동 심사를 통해 우리가 본 3명의 발표가 모두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다음날인 2월 9일에는 우리들이 교수학습센터의 학습지원 및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기초교육원의 대학국어와 말하기 강좌의 실제 운영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는 교양연구센터 소속 교수들뿐만 아니라 발표 경연대회에 온 학생들도 모두 참석하였다. 발표는 간단한 편이

었지만, 학생들이 뜻밖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질문이 쏟아져서 결국 모임은 네 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질문 가운데는 서울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강의에 관한 질문도 있었지만, 공부와 관련한 개인적 고민이나 문제의식들을 드러내는 질문들도 많이 나왔다. 예컨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상대할 때 교수가 그들의 특수성을 어떻게 고려하여 접근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이 그런 경우였다.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컸고, 거기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진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서 교양연구센터 교수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도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은 단연 첫 번째 화제였다. 교수들에 따르면 일본 학생들은 역시 일반적으로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학생들은 학습법이라는 실험적 과목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로, 공부에 대한 의욕과 열의가 남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열띤 반응은 교양연구센터 교수들도 예상치 않은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양연구센터 교수들이 모두 무보수 겸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은 영어, 독일어, 음악사 등 다양한 교양 과목 담당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습법 과목을 비롯한 교양연구센터의 일은 모두 과외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센터에만 소속된 전임 연구 인력은 없으니, 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들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 교양 교육의 앞날을 고민하며, 학생들과도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본은 그동안 교양 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교양 무용론에서 다시 교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교양에 대한 고민도 더욱 치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행사는 2005년 3월 10일 서울에서 열렸다. 교수학습센터 글쓰기교실에서 제1회 우수 리포트 공모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수상자를 비롯하여 교수학습센터의 학습 지원 및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초대하여 참가 소감과 건의 등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교양연구센터의 요코야마 치아키 소장 및 소속 교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학생들이 기대 이상의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언하였기 때문에, 발표회는 예상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졌고, 교양연구센터 교수들에게는 서울대학교 교육 현실의 단면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센터를 찾아오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큰 의욕과 열정,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면서 필자는 이런 학생들에게 그들의 열정을 잘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제공해주는 것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소중하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게이오기주쿠대학의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서 얻은 교훈이었다.

오는 9월에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들, 서울대 학생들과 게이오기주쿠대학 학생들 사이의 만남이 비록 화면을 통해서나마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교육에 관해, 하고자 하는 공부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생각된다. 이 만남과 대화로부터 많은 생산적인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